

# 사람의 본분

**전도서 12: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본문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말한다. 무엇을 다 들었다는 말인가? 전도자는 이 책에서 적어도 두 가지를 말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만 영원하다는 것이다. 전도자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말한 후에 결론적으로 사람의 본분에 대해 말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시간, 전도서의 이 말씀을 생각해보자.

## 1. 허무한 세상

첫째로,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강조해서 말한다. 전도서 1:2,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2:8,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범죄한 세상은 허무한 세상이 되었다.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말이 38번 나온다. ‘헛되다’는 원어(히브리어 חֲלוּל)는 본래 ‘수증기, 입김’이라는 뜻이며(잠 21:6; 사 57:13), ‘사라지는 것, 덧없는 것, 무가치한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아담은 범죄한 후 하나님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말씀을 들었다(창 3:19). 그것은 몸의 죽음을 가리켰다. 몸의 죽음은 죄 때문에 왔다. 사람은 일평생 수고롭게 살며 늙고 병약하다가 마침내 죽는다. 범죄한 사람의 몸은 허무한 몸이 되었다.

다윗은 시편 39편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

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이 죽고나면 그의 일생은 그림자 같다.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일생이 일식간에 지나간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했다.

이사야는 이사야 40장에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고,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이 사람은 죽는다고 말했다. 사람은 죽음으로 사라진다. 사람은 덧없는 존재이다.

## 2. 영원한 천국

둘째로, 전도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만 영원하다고 말한다. 전도서 3:14,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자는 전도서 3:11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했다. 사람은 허무한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삶을 사모한다.

전도서 12:1에서 전도자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했다. 세상은 다 허무하지만,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그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전도서 12:7에서 전도자는 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했다. 성도가 죽으면 그 영은 하나님께로, 즉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 세상은 사람의 범죄로 저주받은 세상이 되었고 시들고 쇠하는

세상이 되었으나, 천국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표현한 대로 지금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다(벧전 1:4).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말했다(벧전 1:24-25).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며 그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주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다(요 5:24).

또 그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다(요 11:25-26).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꿈의 해석에서 로마 시대로 보이는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단 2:44).

또 다니엘 7장에서도 그는 네 짐승의 환상, 즉 네 나라의 환상을 말하면서, 그 후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증거하였다(단 7:18).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증거하였다(고후 4:17).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11에서 천국을 ‘영원한 나라’라고 말

하였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4에서 새 하늘과 새 땅 곧 천국에 대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증거하였다.

또 그는 요한계시록 22:5에서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고 증거하였다. 천국은 영생의 나라이다.

물론, 천국은 영원한 나라일 뿐 아니라, 또한 의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나라이다. 로마서 14:17,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 3. 사람의 본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전도서 12:13,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는 원문(키 제 콜 하아달 כִּי־זֶה־הוּא־הַבְּרִיָּה־כָּל־אָדָם)은 “이것이 사람의 모든 본분이니라”는 뜻이든지, 아니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는 뜻일 것이다.

허무한 세상에서 사람의 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우리는 전도서의 교훈을 기억하자. 우리는 이 세상이 허무한 세상임을 인식하자. 사람이 허무한 세상에서 그림자 같은 삶은 살면서 거기에 모든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그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을 알고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올해는 더 많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성경의 교훈대로 온전케 되기를 힘쓰자.